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02) 596-317 ·Fax : 02) 594-3171

·E-mail : odsk@opendoors.or.kr

www.opendoors.or.kr

2019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

(2019 World Watch List)

엠바고(Embargo) 16일(수) 오전 6:00

목차

I . 2019 세계 기독교 박해 경향

1. 국가 권위주의의 확산
2. 초강력 민족주의에 기초한 정부의 기독교 배척
3. 중동에서 사하라 사막 이남으로 과격 이슬람 세력의 확산

II . “2019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 (World Watch List) 주요 내용

1. 10위권 국가들
2. 10위권 밖에서 최고의 상승세를 보인 국가들
3. 50위권으로 진입한 국가들
4. 박해 순위가 낮아진 주요 국가들
5. 개별 성(性, gender)에 나타나는 박해의 차이점 조사

III . 폭력 상황 및 통계

1. 폭력
2. 상위 50개 국가
3. 박해 관찰 국가(51위 - 73위)

I . 2019 세계 기독교 박해 경향

지난 5년 동안 북한만이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World Watch List)에서 “극심한” 박해의 영역 속에 있었다. 하지만 2018년처럼 2019년의 보고서에는 11개 국가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2012년부터 가속화되기 시작해서 2016년 이후로 박해 순위는 더 심화되는 기독교 박해 상황을 해마다 보여주고 있다. 부분적으로 디지털 혁신에 의한 지구촌 자료 수집이 용이해져 더 구체적인 자료들의 수집이 가능해진 것이 부분적 이유이기도 하다. 기술은 항상 각국의 정부들을 감시를 가능하게 한다. 금년에 많은 나라들이 “폭력”의 영역에서 뚜렷한 상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박해 수치는 상승했다. 이러한 점의 시사하는 것은 죽음과 파괴로 치달는 폭력 사태를 제외하더라도, 차별과 적대감을 드러내는 보다 체계적이고, 합법적이며 그리고 사회적인 억압 구조가 확산되었음을 의미한다.

경향 1

국가 권위주의(State Authoritarianism)의 확산

북한은 18년 연속으로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World Watch List)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은 어떤 다른 신념과 종교를 최고 영도자에 대한 정치적 범죄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권위주의는 개인 정보 소통의 기술이 발달한 세계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다. 정부는 얼굴인식과 전자칩 등을 이용하여 사생활을 추적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나라는 중국(27위)이다. “종교사무조례”(Regulations for Religious Affairs)가 2018년 2월 1일이 시행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종교적 활동을 금지시켰고, 이에 따라 유치원과 주일학교가 문을 닫았고, 여름성경학교가 금지되었으며 교회는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회 출입 금지에 동의하고 서약해야 했다.

2018년 3월에 시진핑은 마오쩌둥 이후로 무제한의 권력 사용을 승인 받았으며, 중국은 “향후 5년간(2018-2022) 중국 기독교의 활동에 대한 원칙”을 발표했다. 중국의 “종교사무국”(State Administration of Religious Affairs)은 폐쇄되었고 대신 중국 공산당의 “연합전선사무국”(United Front Work Department)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부서는 인종간의 문제, 곧 신장 지구의 위구르 무슬림을 다루는 부서이기도 하다.

어느 정부의 보고서는 “적극적 지도”를 통해서 종교가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공산당을 위해 봉사한다는 의미이다. 종교의 중국화는 러시아 연방(41위)나 베트남(20위) 혹은 라오스(19위)와 같은 다른 권위주의적 정부를 반영하는 것으로, 종교를 안정화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의도이다. 궁극적으로 시진핑은 종교를 중국다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여러 다양한 도구 가운데 하나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교회들은 이러한 압력에 직면해서 예배 전에 국가를 부르고 십자가의 깃발보다는 국가의 깃발 아래 모여들고 있다. 심지어 일부 가톨릭교회들은 예수 그림 대신에 시진핑의 사진을 걸어놓으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

9월에 바티칸은 주교 임명에 대해 중국 정부와 합의를 했는데, 교황만이 유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1천 2백만의 중국 가톨릭 신자들 가운데 절반은 지하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정부의 두 개 기관의 웹사이트는 바티칸과 베이징이 인정하는 60명의 주교들이 바티칸으로부터 “독립” 원칙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가톨릭 사제들은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이며, 10월에 정부는 두 개의 유명한 가톨릭 순례성지를 파괴했다.

여러 지역에서 교회 모임은 여전히 방해를 받고 있는데, 특별히 중부에 위치한 농촌 Henan(헨안)성에서 60%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동부 해안 저장(Zhejiang)성의 교회들 십자가는 철거되었으며 크기와 위치 그리고 색깔에 대해 규제되고 있다.

정부가 통제하는 “삼자애국운동”(Three-Self Patriotic Movement)에 등록된 교회들은 감시카메라 설치 등 규정의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9월에 1천 5백 명이 모이는 베이징 최대의 가정교회인 시온교회가 카메라 설치에 반대하면서 폐쇄되었다. 공식적인 이유는 “등록이 안 된 건물에서 등록이 안 된 교회 그룹이 불법적 모임을 가졌다”는 것이었다. 건물 소유주는 기독교인들에게 건물의 임대료를 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 정부의 종교사무국은 등록 신청서에 대한 권한과 장소의 승인뿐만 아니라 예배 장소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그래서 등록에 대한 실무는 다양하게 처리된다. 목회자들과 종교 담당 교사들은 지역 경찰에 몇 주마다 보고해야 한다고 지시를 받았다. 어떤 경우 “소방 안전시설의 미비”와 같은 위반행위로 인해 지나치게 벌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소그룹의 모임은 체포되고 심문을 받지만 주로 당일 풀려난다. 때때로 교회 전체가 모두 파괴되기도 한다.

전자상거래에서 성경이 최근에 사라졌다. 이것은 성경이 온라인상에서 다운로드되

거나 판매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은 국가가 승인한 교회의 서점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며, 비공식적인 가정교회들은 자신들의 통로를 통해서 성경을 판매하고 있다.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선교활동을 하거나 가정교회를 돕는다고 여겨지는 모든 외국인들은 중국 전역에서 추방을 강요당했다.

최근 위그르 무슬림이 45%에 달하는 신장(Xinjiang) 자치구에 재교육 캠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무슬림 배경의 약 6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이곳에 살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 캠프에 끌려갔고 이후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다.

유사한 국가 권위주의는 베트남(20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1975년 공산화 정권이 들어선 이후 종교에 관한 최초의 법률인 “신앙과 종교에 관한 법률”(Law on Belief and Religion)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베트남 역시 종교를 국가 안전에 대한 사회적 문제와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법률은 “종교사무위원회”(Committee on Religious Affairs)라는 매우 관료적인 기관을 탄생시켰다. 이 기관의 역할은 내무부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

국가 권위주의는 미얀마(18위)의 상황에서 민족주의와 결합하고 있다. 찰스 보(Charles Bo) 가톨릭 추기경은 “수십 년의 무장 투쟁 기간에 군대는 종교를 인종적 탄압을 위한 도구로 전략시켰다”고 증언한다. 10만 명 이상으로 다수의 부족인 카렌(the Karen)족은 국경을 넘어 태국의 난민캠프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그 동안 수천 명이 피살되었으며 최소 12만 명은 기독교인이 다수인 카친(Kachin) 주로 피신했다. 미얀마 최대 인종 군사 집단이며 중국의 지원을 받는 “와연합군대”(United Wa State Army)는 1989년 공산당 몰락 이후 세워진 모든 교회는 파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교회의 설립은 허가되지 않고 있으며, 모든 교회와 선교사와 교사 그리고 목회자는 조사를 받으며, 외국인 사역은 금지되고 이런 연관성을 가진 활동은 처벌을 받게 된다.

경향 2

초강력 민족주의(Ultra Nationalism)에 기초한 정부의 기독교 배척

민족주의가 점차 강화 되어서 국수주의 태도를 취하는 국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국수주의 체제에서 선량한 소수자 그룹들은 위협적 존재로 여겨질 뿐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을 포기하거나 심지어 나라를 떠나게 하려는 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기독교 인구가 소수인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은, 아마도 과거 식민시대의 안

좋은 역사 때문인지, 정부와 사회로부터 ‘서양인’이나 ‘이방인’이라고 공격을 당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많은 경우 법은 증가 추세에 있는 국수주의의 경향을 소중히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다. 예를 들면, 인도는 인도인민당(BJP)이 집권한 이래 점점 더 극단적인 과격 힌두주의의 경향을 촉진하고 있다. 그래서 인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힌두교도가 되어야 한다고 할 정도다. 29개 주 중에서 8개 주는 반개종법을 통과시켰다. 반개종법에 의하면 개종하려는 사람은 지역 관청에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야 하고 정부의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2개 주는 법이 통과되었지만 아직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인도에서는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에 의해서, 기독교가 세운 학교, 병원, 고아원, 자선기관 그리고 교회와 같은 소위 ‘외국’ 기관들은 종종 공격 대상이나 폐쇄 대상이 되고 있다. 올해 테레사 수녀의 “사랑의 선교회”(Missionaries of Charity)의 한 지부는 소속 수녀와 직원들이 아동 인신매매로 고발당하면서 이 선교회가 운영하는 모든 기관은 검열을 받게 되었다. 인도에서 이러한 고발과 모함은 기독교인들에게 일상화되어 있다.

2014년 5월 모디 총리가 집권한 이래,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 강도는 더욱 커졌다. 매년 폭력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경찰이나 지방 관리와 같은 정부 기관이 폭도가 일으킨 폭력 사고에 대해서 무처벌로 다루기 때문이다. 힌두 과격분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삼아서 폭행하고 마을에서 쫓아내려고 한다. 최근의 추세는 교회 지도자뿐 아니라 그의 아내와 심지어 어린 자녀들을 협박하고 강간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여성과 자녀들을 직접 겨냥한다는 전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다.

기독교인의 숫적 증가와 부족 마을 지역 내에서의 강한 존재감 때문에 힌두 과격분자들은 기독교인을 나라의 위협 요소로 본다. 오래된 카스트 제도에 근거한 차별정책 역시 많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인도 전역의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기독교로 개종하는 대다수의 개종자들이 낮은 카스트나 불가촉민(Untouchable: 카스트보다 낮은 천민)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문서화 된 사건만 해도 적어도 12,500명의 기독교인과 100여 개의 교회가 공격을 당했고 기록하고 있다. 적어도 200명이 단지 신앙의 이유만으로 체포되었고, 적어도 10명의 생명이 희생되었다. 하지만 많은 사건들은 정식 접수되지 않아서 진짜로는 얼마나 많은 숫자가 될지는 알 수가 없다.

국민 대다수가 힌두교도(네팔)이거나 불교도(부탄)인 이웃국가도 비슷한 사정이다.

국가적 종교에 호소하는 것이,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신장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한동안 국수주의적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인 브런슨 목사의 케이스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 것처럼, 에르도안 정부는 수천 명 정도 되는 터키의 기독교 개종자들을 적극적으로 비난했다. 이들 기독교인들을 터키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복음주의적 시온주의 기독교인’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정책은 터키 사회 내의 민족주의적 요소에 활력을 넣어주었다. 이는 곧 아르메니안 정교나 그리스 정교가 아닌 기독교인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경향 3

중동에서 사하라 사막 이남으로 과격 이슬람 세력의 확산

2019년 세계 기독교 박해의 세 번째 경향은 중동 지역의 이슬람 무장세력(IS)의 폭력과 여타의 세력들이 퇴패하면서 자신들의 근거지를 중동에서 상실하는 동안에, 무장 군인들은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으로 흩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동에서 점차적으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으로 퍼져가고 있고, IS의 과격한 이념은 나이지리아의 “보코 하람”(Boko Haram)에서 분리된 “서아프리카 IS”(Islamic State West Africa Province)와 같은 많은 분파그룹들을 자극하고 그들에게 침투해가고 있다. 이들은 기독교 여성과 소녀들을 전략적 요소로 이용해 노예화하고 있다. 2017년 이후 이슬람 무장단체들은 이집트, 소말리아, 리비아 그리고 예멘에서 성장하고 세력이 강화되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병사를 모집하며 약탈을 일삼고 있다.

이집트(16위)에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기독교 그룹은 콥트교회이다. 이들은 약 1억에 가까운 이집트 인구에서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나이 반도에 있는 IS는 의사나 수의사와 같은 지역에서 존경 받는 지도자들을 살해 대상으로 삼고, 지역 사회에 공포를 확산시키며 끊임없이 콥트교회를 소멸하려고 위협하고 있다. 여타의 이슬람 무장세력들은 2017년 크리스마스 직전에 교회에 폭탄을 투하했으며, 18개월 후에 동일한 도로에서 버스에 탄 순례객들을 상대로 테러를 자행했다. 테러리스트에 대한 유죄판결은 언도되어도 하지만, 이집트 정부는 안전에 대한 콥트교회의 청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소말리아(3위)에서 200명이 넘는 전투요원을 갖고 있는 어느 이슬람 무장단체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도망쳐온 무슬림 테러리스트들과 소말리아의 전직 알-샤바브(AI-Shabaab)의 전투요원들을 모집했다. 가톨릭 주교인 모가디슈(Mogadishu)는

“이것은 이슬람 국가를 세우려는 좋은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곳은 통제가 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1천 5백만의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불과 수백 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수민족으로 이뤄진 소말리아 사회는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의 경우 쉽게 가족과 친구 혹은 지역 사회에서 알려지기 때문에 생존의 위협과 함께 생명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정부의 관할권을 수립하는 데 실패한 리비아(4위)는 심각한 환경 속에 놓여 있다. 주로 사하라 사막과 그 이남 지역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에게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그들 중 다수는 기독교인들로서 유럽으로 난민 이주가 어려워지면서 덮에 걸린 것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최소 열 명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살해되었으나, 어떤 언론기관도 관심을 두고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중동과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건너가는 길목에 있는 예멘(8위)은 2천 9백만 명이 사는 아랍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이다. 이슬람 법정인 “샤리아법”(Sharia Law)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란군(Houthi Rebels)과 사우디 아라비아와 연합한 정부군 간의 내전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IS와 알-카에다(al-Qaeda) 무장세력들 간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 추방되고 피난한 기독교인들은 무슬림 배경의 신자들로써 토착화되고 성장하는 교회를 남기고 떠났다. 전문가들은 예상하는 것처럼 내전이 이 교회를 해체시키지는 못할 것이며, 기근의 상황에서도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겠지만 극도의 위험에 처해 있다.

높은 수준의 박해 지수(41점 이상)를 보여주는 국가들 가운데 50위권 밖에 있는 23개 국가에서 18개 국가는 사하라 사막 이남에 위치한 국가들이다. 모로코(51위), 지부티(53위), 콩고(54위), 카메룬(56), 탄자니아(57위), 니제르(58위), 차드(60위), 부르키나파소(61위), 우간다(62위), 기니아(63위), 남부 수단(64위), 모잠비크(65위), 감비아(66위), 아이보리코스트(67위), 부룬디(68위), 앙골라(69위), 토고(70위), 르완다(73위).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은 유약한 정부, 빈곤, 과격파 이슬람 세력의 점진적인 연합으로 기인한, 세상에서 안전에 대한 가장 커다란 위협을 야기시키는 지역이다. 불안정, 부패, 빈곤, 실업 그리고 정부의 무능력은 기독교 박해의 동력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정부는 효과적이지 못하고 때로는 인종적 혹은 정치적 연합으로 인해 결탁하기 때문이다. 연속되는 구조적 취약성의 축적이 주는 효과는 이 지역의 남성과 여성에 대한 확연한 박해의 형태로 나타난다.

리비아 몰락은 혼란을 틈타 무기를 이 지역에 대량으로 공급하게 했으며, 범죄 조

직들은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 이주해온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독교인들을 노예무역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점차 정교해지고 조직화되는 범죄와 마약 카르텔은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은 보다 나은 교육의 기회를 찾기 위해 자신의 조국을 떠나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 기회의 희소성과 경제와 사회 지도자의 부패는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게 한다.

약 30개의 이슬람 무장단체들은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리, 부르키나파소 그리고 일부의 국가에서 일부 무장단체들은 지속적으로 기독교 구호단체의 활동가를 인질로 삼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무장세력인 보코 하람의 폭력성은 차드, 니제르, 중앙아프리카와 북아프리카까지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적 갈등에 가해지는 과격 이슬람 무장세력의 잠재적 융합은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이 동북 케냐(40위)와 중앙아프리카(21위) 그리고 나이지리아(12위)에서 지속적으로 희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보코 하람은 끊임없이 치명적인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심지어 적십자 구호활동에 협력하는 무슬림을 죽이기도 하며, 진압되고 있다는 정부군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한다. 이슬람의 영향력에서 오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벌어진 것과 동일한 수준을 벗어나 상승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12개 주는 샤리아법을 시행하여 통치하고 있어서 헌법이 규정하고 무슬림들이 가지는 권리와 기회 그리고 보호를 기독교인들은 받지 못하고 있다. 금지 조치는 교육 기회를 박탈하고 안전한 직업을 가질 기회 등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부 나이지리아를 무슬림과 기독교인으로 나누는 구분선은 기후 변화와 사막화 그리고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 발생한 토지와 자원에 대한 싸움을 의미했다. 이 구분선인 “미들 벨트” (Middle Belt)에서의 갈등은 다수가 무슬림 유목민인 풀라니 족과 토착화된 기독교인들 간의 발생하는 갈등으로서 이 지역 기독교인들이 최고 수준의 폭력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폭력 점수로만 나이지리아는 파키스탄과 함께 최고의 순위에 올라있다.

AK 소총의 증가와 중무장 화기들 그리고 2018년 10월 조스(Jos) 외각 지역에서 일어난 일가족 몰살과 같은 사건은 많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이러한 공격들이 인종과 종교청소를 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게 했다. 이러한 주장은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희생자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에 의해서만 지지를 확인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작년 6월 어느 토요일에 230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벌어졌

다. 그러나 영국 국영TV인 BBC와 다른 언론 매체들은 정부가 제시한 정보에 따라서 86명으로 희생자를 발표했고 국제관계의 시각으로 보도하는 데 그쳤다.

2018년 1분기 동안에 지역 공동체에 대한 풀리나 무슬림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인해 아다마와(Adamawa), 베누(Benue), 남부 카두나(southern Kaduna), 코기(Kogi), 나사라와(Nasarawa), 플라투(Plateau)와 타바라(Taraba) 주에서 1,061명이 희생되었다. 남부 지역에서는 17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동시에 풀리나 족에 대한 공격과 지역 공동체의 공격으로 인해 61명이 희생되었다. 그중 두 번의 공격은 남부 지역에서 발생했다.

2018년 4월 나이지리아 대통령 부하리(Muhammadu Buhari)가 런던에서 캔터베리성당의 주교를 만나서, “외국 군인들이 리비아에서 사하라 사막 지역으로 유입되었고 장기간 벌어진 농부들과 목동들 간의 갈등을 악화시켰으며, 보코 하람 반란 때보다 더 많은 희생자를 내고 있다”고 증언했다.

“2019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의 아프리카 담당 분석가는, “이슬람 무장세력들은 현존하는 정체성에 기초한 갈등을 도구화해서 자신의 기반을 견고하게 하며, 자신들이 제기하는 지구촌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확산시키고자 한다”고 평가한다. 많은 국가에서 발생하는 가능한 징조들이 존재한다. 이런 국가에서 기독교 박해는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의미한다. 콩고(54위), 부르키나파소(61위) 그리고 모잠비크(65위)가 여기의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정치적 종교적 요소가 복잡하게 갈등이 얽혀있다.

II. “2019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World Watch List) 주요 내용

중국에서부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까지, 73개국의 기독교인들이 강도 높은 박해를 받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에서 새로 입법된 법은 종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중국에서는 종교 박해의 수위가 십 년간 가장 심각하며, 1976년 끝난 문화대혁명 이후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북부 및 중부 나이지리아에서는 최소 3,700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희생을 당했는데, 이 수치는 2,000여 명으로 기록된 작년보다 약 2배가량 증가한 숫자이다. 기독교인들이 살던 마을들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떠나면서 버려지고, 법의 제재를 받지 않은 무장 침입자들이 버려진 마을들에 새로 이주해오고

있다.

인도와 미얀마와 같은 민족주의 정부들은 국가 내 소수 인종들을 통합하기 위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진정한 인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힌두교 신자여야 하고, 미얀마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교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선전한다.

이집트에서와 같이 급진적 이슬람 무장단체로부터 박해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집트에서는 시나이반도의 IS가 2017년에 콥트 교회를 몰살하겠다고 선언했으며, 리비아, 소말리아와 같은 여타 사하라 사막 이남의 국가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자살 폭탄 테러범들이 인도네시아의 세 개의 교회를 하루에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한 사례가 있었다.

멕시코와 콜롬비아에서는 주로 정부의 부정부패와 카르텔에 저항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박해한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주된 박해가 기독교인들의 가족과 친구, 같은 마을의 사람들과 직장 동료, 지역 공무원들과 경찰, 그리고 사법제도에서 온다. 기독교인 여성과 어린 여자아이들은 가족과 지역 사회에서 더 강한 압박을 받으며, 남성과 어린 남자아이들은 무장 단체 혹은 당국의 권력자들의 체제를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

가장 최근에 시행된 연간 조사는 150 개 국가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삶을 조사하였는데, “2019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World Watch List)에 따르면 절반 가량의 (73개 국가) 나라에서 매우 심각한 정도의 박해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 해인 2018년도 보고서에서는 심각한 수준의 박해를 받는 국가로 분류된 곳이 58개국이었다.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는 선교단체인 국제오픈도어가 외부 및 내부 전문가들, 그리고 세계적인 이슈로 떠올랐던 파키스탄인 아시아 비비(Asia Bibi)와 최근 터키의 교도소에서 석방된 개신교 목회자인 안드류 브룬슨(Andrew Brunson)과 같은 동역자들과 함께 기독교인들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다각도로 광범위하게 조사한 결과이다.

2019년 조사에서 극심한 정도의 박해를 받은 국가 (즉, 100점 중 81점 이상의 점수를 기록한 경우)는 총 11개국으로 2018년과 동일한 숫자이다. 특히 사항은, 상위 11개국의 목록에 이라크가 2019년 조사에서는 들지 않았다. 이는 IS가 영토 확장에 실패하여 지역 내 무력 분쟁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올해 인도는 작년 최고 순위를 기록했던 11위에서도 한 단계 올라간 10위를 기록하

었다. 극심한 수준의 박해가 있는 인도와 매우 높은 수준의 박해가 있는 중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상위 2개 국가이며 각각 세속적 민주주의 그리고 공산국가로 전례 없는 박해가 서로 다른 방법으로 표출된다.

오픈도어에서 제공한 리스트에서 집계한 4,136명의 기독교인 사망자 중 나이지리가 대략 90%를 차지한다(3,731명).

12위에서 40위 사이를 차지하는 29개 국가가 100점 만점 중 61점 이상을 기록하며 매우 높은 수준의 박해가 있음을 보여준다.

41위에서 73위 사이로 기록된 33개 국가가 41점 이상을 기록하며 높은 수준의 박해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그 동안 상위 50개 국가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였는데, 올해는 23개 국가가 상위 50개국에 이름이 오르지 않았음에도 이번 조사에서 높은 수준의 박해를 받아 높은 점수를 받아 “박해 관찰 국가”(Persecution Watch Country)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 23개 국가를 포함한 국가들에서 9명 중 1명의 기독교인이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했다고 조사되었는데, 이는 작년 조사에서 기독교인 12명 중 1명이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했다고 밝혀진 조사 결과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UN에서 정한 아시아라는 지역적 정의 안에 포함된 국가들 (이는 중동 국가들을 포함하는데) 안에서는 평균적으로 기독교인 3명 중 1명이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하며,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는 6명 중 1명, 남미 지역 안에서는 기독교인 21명 중 1명이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하고 있다.

1990년대에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World Watch List)를 제안한 현 국제오픈도어 국제 업무 최고 책임자 위보 니콜라이(Wybo Nicolai)는 “통계적 증거를 기반으로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경험하는 박해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즉 박해의 강도나 박해가 발생하는 국가 수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조사를 통해 작년에 비해 올해 박해 지수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말하였다.

이 목록은 5개 영역: 개인 생활, 가족, 지역 사회, 국가, 및 교회 생활의 영역을 평가하여 점수를 내고 순위를 정하여 만들어지는데, ‘폭력’이라는 제6의 항목은 위의 5개 영역을 아우르며 개인의 자유 및 사유재산 소유와 같은 권리의 박탈과 같은 심각한 정도의 폭력의 여부를 평가한다.

폭력이라는 항목을 제외하고서는 2014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 50개 국

가 점수의 중간 값은 52.9점이었던 반면, 2019년에는 61.4점으로 5개의 영역에서 점수가 약 16% 상승하였다. 이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 10위권 국가들

북한은 올해도 2002년부터 유지해왔던 1위의 자리를 지켰다.

작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의 북미정상회담 개최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에 있는 200,000-400,000명가량의 기독교인들의 생활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이중 50,000-70,000명은 100,000명가량이 수용되어 있는 정치범 수용소 수용자들로 알려져 있다.

북한을 이어 2위와 3위를 기록한 아프가니스탄과 소말리아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

리비아는 2018년 7위를 기록했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4위로 순위가 상승하였다.

리비아는 여전히 취약 국가로 여겨진다. 7월에 리비아 군대가 IS의 점령 하에 있던 동부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되찾았으나, 9월에는 돌연 UN의 지지를 받는 정부가 수도 트리폴리에서 있었던 무장 단체들 간 충돌 사태가 벌어진 이후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올해에는 고위급 외국인들의 죽음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유럽 연합이 난민들의 주된 탈출 경로 중 하나인 지중해를 통해 국경선을 넘는 경로를 더 엄격히 제지한 이후로 사하라 이남에서만 약 20,000명의 기독교인들이 리비아에 발이 묶이게 되었다. 이들은 여러 압력과 폭력에 더욱 취약하다. 믿을 만한 소식에 따르면 최소 10명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피살되었다고 보고한다. 이들에 대한 노예화, 각종 학대 및 강간이 자행된다고 보고된다. 소수의 리비아인들만 기독교인이며,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수반한다.

파키스탄, 수단, 에리트레아, 예멘, 이란 (순서대로 5위~ 9위 기록) 모두 극심한 박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2018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인도는 2018년 11위에서 올해 10위로 그 순위가 상승했다.

힌두교 기반의 민족주의 집권 정당인 인도 인민당(BJP)은 2019년 총선을 앞두고 주의회 등 지방 선거에서 승리하며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우타라칸드 주에서 올해 개종을 제지하는 법을 도입했다. 이 법은 현재 29개 주 중 8개 주에서 통과되었다. 2개 주에서는 아직 시행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 민족주의 무장 힌두 단체들은 여전히 기독교는 이질적인 이방 종교로 여기며 인도인임을 정의하는 중요한 요소가

힌두교라는 종교라고 생각한다. 폭도들은 법의 제재를 받지 않으며 교회 건물을 파괴, 교회 지도자들을 공격하여 부상 및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을 강간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건을 기독교인들이 경찰에 보고하면 오히려 힌두교인들을 강압적으로 개종시킨 거짓 혐의로 기소된다. 인도의 언론에서 이와 같은 거짓 혐의가 종종 잘못 보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2. 10위권 밖에서 최고의 상승세를 보인 국가들

미얀마 : 2018년 24위에서 18위로 상승

미얀마 전체 인구의 8퍼센트를 구성하는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4백만 명 이상으로 대부분의 신자들의 85퍼센트가 카친(kachin) 주와 북부 산(Shan) 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둘 다 중국 국경 지역이다. 2018년 전 세계가 로힝야 족 핍박에 주목하는 동안, 기독교 소수족인 카렌(Karen) 족, 친(Chin) 족, 카친(Kachin) 족을 포함한 종족과 부족 간의 갈등은 지속되었다. 최소 15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2011년 전투로 인해 유랑민 신세가 되었으나 미얀마 군대는 국제 원조 물품 수송을 막았고 유엔마저 지속적으로 접근이 거부되었다. 보고서에 기록된 방문자들에 의하면 미얀마 군대가 교회를 폭발시켜 불교 탑으로 대체했고, 당국의 주장은 “미얀마인이 된다는 것은 불교신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보고한다. 북부 산 주에서 중국 지원을 받는 반군 세력 “연합과 국가군대”는 교회 12개를 문 닫게 했으며 2018년 9월에 12명의 신자들을 구금한 후 추방시켰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 2018년 35위에서 21로 상승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약 십여 개의 무장 단체가 전체 국토의 8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로 인해 무수히 많은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취약하고 불안한 여러 나라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갈등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3백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도움과 원조가 필요하지만 국제 구호 단체들이 사역하기에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이다. 자국 내 가톨릭과 개신교, 이슬람 지도자들은 종교로 인한 갈등은 없다고 부인하지만 종교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 및 신앙과 관련된 개인과 공동체를 목표로 한 수많은 폭력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 러시아가 그동안 성과를 거두지 못한 수많은 협정에 대한 중재 역할을 담당했다.

알제리: 2018년 42위에서 22위로 상승

2018년에서 2019년 1년 사이 알제리만큼 함께 점수에서 큰 증가를 보인 나라는 없다. 알제리의 교회는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북쪽 지방의 베르베르(Berber) 지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국가와 가족의 많은 핍박에 직면한 1세대 기독교 신자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의 담대한 신앙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과 사회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최소 6개의 개신교 교회가 강제로 문을 닫아야 했고 12개의 교회는 문 닫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알제리 개신교는 1974년부터 인정을 받아 모든 법률상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식적인 지위를 얻지 못했다. 개신교 측은 예배 장소에 대한 규제 완화와 반개종법 중지, 교회 서적 수입 허가를 신청하고 있다. “성경을 소지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괴롭힘의 희생양이 되어 계속 핍박을 받고 있는 신자들이 있다”고 전해진다.

말리와 모리타니는 여러 정보 및 처리 과정에 의해 각각 37위에서 24위, 47위에서 25위로 상승

중국: 2018년 43위에서 27위로 상승

약 1억 명의 신자가 있는 교회는 8천9백만 명의 당원이 있는 공산당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가장 큰 사회 세력이다. 공식적인 자료에 따르면 몇몇 지역에서 신자들이 인구의 10퍼센트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들 중 약 절반이 핍박을 경험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에는 핍박받은 신자들이 약 20퍼센트에 해당된다. 시진핑의 종교 활동에 대한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2018년 2월 1일 새로운 종교 규칙이 시행되었다. 이것은 “시민들의 종교 신념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목적”을 제시하고 종교 활동에 대한 행정업무를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칙들은 1976년 끝난 문화대혁명 이후 13년간 가장 억압적인 온라인에서의 종교 표현과 개종에 대한 새로운 규칙 또한 포함하고 있다. 정부 당국이 아닌 공산당이 새로운 법 시행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사항은 더욱 가혹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에겐 더욱 그러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2018년 38위에서 30위로 상승

세계에서 이슬람 신자가 가장 많은 나라로 2억1천2백만 명의 무슬림들이 거주하고 있다. 2019년 대선에 앞서, 3천 2백만 명에 해당하는 기독교 신자들은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자카르타 전 주지사 아욱(Ahok)의 신성모독이라는 누명으로 재판을 받고 2년간의 교도소생활(그는 2019년 풀려날 예정이다)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최근까지 온건 이슬람으로 알려졌던 인도네시아에서 2018년 5월, 9살 소녀를 포함한 한 이슬람 가족에 의해 자행된 수라바야의 3개 교회를 상대로 한 자살폭탄테러는 나라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3. 50위권으로 진입한 국가들

모로코: 2018년 55위에서 주요 정보 및 처리과정에 의해 35위로 상승

러시아: 2018년 54위에서 41위로 상승

정부 당국은 전체 인구의 약 2퍼센트에 해당하는 비전통적인 기독교 공동체를 반러시아인, 즉 국가적 동방정교회 신자들을 빼앗는 서구의 스파이로 간주한다. 결과적으로, 이 공동체의 활동은 국가정보기관 또는 경찰과 같은 정부기관의 감시를 항상 받고 있다. 지난 수년간, 당국은 부분적으로는 이슬람 급진파의 폭력 위협에 대한 규제 목적으로 종교 활동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했다. 2019년 기독교 박해순위 보고기간인 지난해 2월 다게스탄(Dagestan)에서 교회를 대상으로 발생한 공격으로 인해 5명의 신자가 사망하고, 5명은 부상당했으며, 5월에는 체첸 공화국에서 1명이 사망했고 교회건물이 파괴되었다. 무슬림이 대다수인 지역에서 비 동방정교회 신자들 또한 종종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핍박의 주요인은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합병한 후, 종교 기관의 의무적인 등록을 시행하면서 이 지역에서 비 동방정교회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4. 박해 순위가 낮아진 주요 국가들

이라크 2018년 8위에서 13위로 하락

IS가 차지하던 영토에서 퇴패하면서 수천 명의 신자들이 특히 모술(Mosul) 니네베(Nineveh, 니느웨[성경]) 지역에서 교회를 재건하고 정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핍박의 종결을 의미하진 않는다. 소수 종교 집단인 그들은 괴롭힘과 차별 그리고 종종 심신의 피해를 계속 받고 있다.

말레이시아: 2018년 23위에서 42위로 하락했지만 점수는 5점 차이에 불과하다.

5월 총선거는 통일말레이국민조직이 주도한 62년간의 연정 통치를 종식시켰다. 현재 93세인 마하티르 모하마드 전 수상은 정치에 다시 복귀하여 승리했다. 무슬림이 다수인 말레이시아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말레이 무슬림들에게 있어 복음을 전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법에 위배되는 일이다. 이른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살해 위협을 받은 레이몬드 코 목사는 2017년 2월 납치된 후 현재 실종상태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당국은 그를 비롯해서 사라진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수사를 재개했다(그러나, 2017년 11월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에 대한 박해순위 보고 기간 후에 종교 소수 민족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5. 개별 성(性, gender)에 나타나는 박해의 차이점 조사

개별 성(性)에 대한 핍박은 남자와 여자의 서로 다른 형태로 체계적으로 착취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공동체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간주된다. 신자

로 살기 가장 어려운 5개의 국가 중에 여성 신자들이 경험하는 핍박을 살펴보면, 성적인 폭력과 강간, 강제결혼으로 구분된다. 다른 한편으로, 남자 신자들은 재판 없이 구금을 당하거나 정부당국 또는 민병대에 의해 즉결로 사형을 당하기도 한다. 2019년의 추세는 2018년 조사 결과를 강화하는 것으로 대체로 남자 신자들의 핍박은 “집중과 가혹, 현저함,” 여성 신자들의 핍박은 “복잡과 폭력, 은폐”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여성 신자들의 경우 핍박을 숨기는 경향이 있어 보고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지난 2년간 조사에 임한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여성들에 대한 이해도 증가하였고 은폐된 핍박의 형태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요컨대, 오픈도어는 순위에 오른 50국가 중에서 최소 2억 4천 5백만 명에 해당하는 기독교 신자들이 상당한 핍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III. 폭력 상황 및 통계

1. 폭력

아래의 글은 2019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의 해당 기간에 수집된 폭력에 관한 구체적 설명이다. 또한 2018 보고서 해당 기간의 내용을 비교하였다. 2019 보고서 폭력 파트에서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앙으로 인해 희생된 기독교인들
2 파괴된 교회와 기독교 소속 건물들
3 재판 없이 체포되거나 투옥된 기독교인들

아래의 폭력에 대한 자료 구성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제시된다.

- (1) 2019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 상위 50개 국가
- (2) 박해 관찰 국가(2019 보고서 51위에서 73위).

그러나 이 보고서는 전 세계의 상황을 포함한 것이 아니므로, 전 세계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추가해야 한다.

- (3)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유럽 기독교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관찰기구” (the Observatory on Intoleran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Christians in Europe) 자료.

주어진 자료는 가능한 직접 계수한 것이며, 직접적인 수치를 찾아내지 못한 경우

명백히 기독교인들에게 행해진 폭력 사건들의 자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수치를 계수했고, 일부는 “기독교 박해 연구소” (World Watch Research)의 관례에 따라 처리했다.

숫자에 *(별표)가 표시된 경우에 실제 수치는 표기된 것보다 훨씬 크며, 분명하게 계수하기 어려운 경우는 10, 100 등으로 어림잡아 수치를 표기했다. 기입된 숫자들은 보도된 사건을 기준으로 삼았고, 실제로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희생된 것이 분명하므로 숫자들은 최소의 수치로 표기했다.

한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난 박해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특히, 전쟁 중이거나 오픈도어(Open Doors)의 사역자가 입국하여 활동하지 않는 나라들이 그렇다. 그렇기에 북한에 관한 대한 숫자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1) 상위 50위 국가(1위-50위)

폭력	WWL 2019 상위 50 국: 희생된 기독교인 숫자	WWL 2018 상위 50 국: 살해당한 기독교인 숫자
1 신앙으로 인해 희생된 기독교인들	4,136	2,782
2 파괴된 교회들과 기독교 소속 건물들	1,266	622
3 재판 없이 체포되거나 투옥된 기독교인들	2,625	1,760

(2) 박해 관찰 국가(51-73 위)

폭력	WWL 2019 박해관찰국가: 희생된 기독교인 숫자	WWL 2018 박해관찰국가: 희생된 기독교인 숫자
1 신앙으로 인해 희생된 기독교인들	147	247
2 파괴된 교회들과 기독교 소속 건물들	201	33
3 재판 없이 체포되거나 투옥된 기독교인들	502	140

아래 표의 국가리스트는 폭력 순위가 가장 높은 나라들로 노란색으로 표시된 나라들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파트 2 문서에서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2. 상위 50 개 국가(1 위 - 50 위)

(1) 신앙으로 인해 희생된 기독교인들

Top 50 countries	2019	2018
Nigeria 나이지리아	3,731	2,000
Central African Republic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146	500
Somalia 소말리아	50	23
Ethiopia 에티오피아	31	3
Pakistan 파키스탄	28	15
Kenya 케냐	20	39
Indonesia 인도네시아	18	1
Egypt 이집트	17	128
Mexico 멕시코	15	8
Mali 말리	14*	1
Syria 시리아	14	0
Afghanistan 아프가니스탄	10*	21
Libya 리비아	10*	10
India 인도	10	8
Colombia 콜롬비아	7	5
Russian Federation 러시아	6	0
Iraq 이라크	5	3
Myanmar 미얀마	3	3
Bangladesh 방글라데시	1	4
Sudan 수단	0	3
Turkey 터키	0	3
Eritrea 에리트레아	0	1
Kyrgyzstan 키르기즈스탄	0	1
Laos 라오스	0	1
Vietnam 베트남	0	1
TOTAL	4,136	2,782

(2) 파괴된 교회와 기독교 소속 건물들

Top 50 countries	2019	2018
Nigeria 나이지리아	569	22
China 중국	171*	10
Myanmar 미얀마	100*	2
India 인도	98	34
Mexico 멕시코	40	6
Pakistan 파키스탄	28*	168
Colombia 콜롬비아	26	32
Egypt 이집트	25	7
Central African Republic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22	157
Ethiopia 에티오피아	20	19
Iran 이란	20	17
Indonesia 인도네시아	19	19

Vietnam 베트남	18	6
Mali 말리	13	13
Sudan 수단	10*	25
Sri Lanka 스리랑카	10	10
Turkey 터키	10*	10
Algeria 알제리	10	2
Eritrea 에리트레아	9	8
Nepal 네팔	7	4
Syria 시리아	7	1
Bangladesh 방글라데시	6	8
Iraq 이라크	3	10
Jordan 요르단	3	4
Kazakhstan 카자흐스탄	3	2
Kenya 케냐	3	0
Laos 라오스	3	0
Libya 리비아	2	3
Malaysia 말레이시아	2	3
Russian Federation 러시아	2	1
Yemen 예멘	2	0
Tajikistan 타지키스탄	1	5
Bhutan 부탄	1	2
Palestinian Territories 팔레스타인	1	1
Afghanistan 아프가니스탄	1	0
Mauritania 모리타니	1	0
Somalia 소말리아	0	4
Saudi Arabia 사우디아라비아	0	3
Azerbaijan 아제르바이잔	0	2
Oman 오만	0	1
Tunisia 튀니지	0	1
TOTAL	1,266	622

(3) 재판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거나 수감된 기독교인들

Top 50 countries	2019	2018
China	1,131*	134
Eritrea	370	375
India	207	635
Vietnam	186	25
Myanmar	154*	19
Nigeria	116*	14
Iran	67	69
Sudan	63	20
Pakistan	56	110

Uzbekistan	40	25
Laos	30	25
Nepal	25	7
Colombia	17	6
Egypt	17*	1
Bangladesh	16	3
Iraq	14	3
Kazakhstan	11	25
Tajikistan	11	5
Central African Republic	10*	83
Afghanistan	10*	37
Mexico	10	10
Mali	10*	0
Turkmenistan	7	6
Azerbaijan	5	26
Saudi Arabia	5	13
Yemen	5	1
Ethiopia	4	32
Tunisia	4	16
Libya	4	6
Maldives	4	4
Indonesia	4	2
Russian Federation	4	0
Turkey	3	4
Oman	2	10
Morocco	2	0
Kenya	1	0
Algeria	0	2
Jordan	0	2
Malaysia	0	2
Somalia	0	1
TOTAL	2,625	1,760

3. 박해 관찰 국가(51위 - 73위)

다음 표의 국가리스트는 폭력수위가 가장 높은 나라들로 노란색으로 표시되었다.

(1) 신앙으로 인해 희생된 기독교인들

박해 관찰 국가	2019	2018
콩고 Congo (Democratic Republic)	43	136

모잠비크 Mozambique	42	0
남수단 South Sudan	30*	0
카메룬 Cameroon	18*	100
부르키나 파소 Burkina Faso	10	0
우간다 Uganda	2	2
기네아 Guinea	1	4
베네수엘라 Venezuela	1	1
차드 Chad	0	3
레바논 Lebanon	0	1
TOTAL	147	247

(2) 파괴된 교회와 기독교 소속 건물들

박해 관찰 국가	2019	2018
르완다 Rwanda	100*	0
남수단 South Sudan	20	0
콩고 Congo (Democratic Republic)	16	10
니카라과 Nicaragua	15	0
앙골라 Angola	10*	3
쿠바 Cuba	10*	1
베네수엘라 Venezuela	8	6
부룬디 Burundi	5	0
니제르 Niger	5	0
카메룬 Cameroon	3*	1
탄자니아 Tanzania	2	5
아이보리코스트 Ivory Coast	2	2
기네아Guinea	2	0
우간다 Uganda	1	2
키르기즈스탄 Kyrgyzstan	1	1
감비아 Gambia	1	0
차드 Chad	0	2
TOTAL	201	33

(3) 재판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거나 수감된 기독교인들

박해 관찰 국가	2019	2018
콩고 Congo (Democratic Republic)	216	0
남수단 South Sudan	200	0
쿠바 Cuba	34	124
아이보리코스트 Ivory Coast	17*	1
부룬디 Burundi	10*	0
르완다 Rwanda	10*	0
니카라과 Nicaragua	5	0

카메룬 Cameroon	4	10
베네수엘라 Venezuela	3	0
코모로스 Comoros	2	1
바레인 Bahrain	1	0
우간다 Uganda	0	2
키르기즈스탄 Kyrgyzstan	0	1
탄자니아 Tanzania	0	1
TOTAL	502	140